

과학교실에서 초임교사의 설명 응집성과 교사-학생의 발화교대 특성에 관한 연구

유은정*, 고윤정, 김찬중, 이선경
서울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요약

초임 교사가 수업에 직면하여 겪는 어려움 중의 하나는 과학 내용을 어떻게 잘 설명하고 학생의 활동을 적절하게 조직하여 학생의 이해를 돕는 수업 환경을 창출하는가에 있다. 과학 수업의 전통적인 방식은 교사 중심의 전달식 수업 방식이었으나, 그에 대한 이론적 비판 및 현장 수업에 대한 반성에 따라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이 제안된 것은 최근 일이 아니다. 그러나 전통적인 방식으로 배워왔고 실제적인 교수학습 지도에 대해 충분한 실습 과정을 거치지 않은 초임 교사가 과학교육 이론가 및 연구자들이 제안하고 권고하는 학생 활동 중심의 수업을 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또한, 교사 개인의 경험에 따라 새로운 수업 방식의 도입을 시도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의미의 학생 이해를 고려한 수업을 수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초임 교사의 과학수업의 흐름이 교사 설명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사례와 학생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수업 사례를 양적 및 질적으로 분석하여 각 수업의 강점과 약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교사의 설명 중심 수업의 경우, 어휘 반복을 통한 교사 발화의 응집성이 두드러져 학습 내용을 유기적으로 조직해 주었으나, 학생 발화는 교사의 유도 발화 수준에 증속된 형태를 보이며 제한적이고 수동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반면, 학생 활동 중심 수업의 경우, 교사가 발화 교대 순서를 열어 놓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의 개시 발화나 학생 간 피드백이 자연스럽게 유도 되고 있었으나, 교사 발화의 응집성이 부족하여 분절된 과제수행 형태를 보였다. 이 연구 결과는 초임교사의 전문성 근거에 놓인 수업 담화(교사의 설명 및 학생과의 발화교대)와 진정한 의미의 학생 활동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초임교사, 수업담화, 학생활동, 발화교대, 어휘반복